

한국어판 실어증 감별진단검사법 시안(I)의 임상적응에 대한 예비연구  
(The Preliminary Clinical Application of the Tentative  
Korean Aphasia Test Battery Form(I))

연세의대 재활병원 언어치료실, 동경도 노인총합연구소  
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 및 재활의학교실

박혜숙, 사사누마 스미꼬, 선우일남, 나은우\*, 신정순

실어증 감별진단검사법은 실어증환자들의 진단, 치료계획의 설정, 치료 효과 및 예후의 판정 등을 위하여 사용된다.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우리에게 알맞는 실어증 감별진단검사법이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문화 및 언어구조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어증 감별진단검사법(노인총합 연구소판)을 우리나라의 정신문화 및 언어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번역 보완한 다음 한국어판 실어증 감별진단검사법 시안(I)을 실어증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에 적용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.

실어증 환자 40명과 연령 및 교육정도가 실어증 환자군과 비슷한 정상성인 4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실어증 감별진단검사법 시안(I)을 시행하였다. 그 결과 실어증 환자군에서는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총득점은 물론 모든 언어과정과 각 하위검사 항목에 있어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득점율의 저하를 나타냈다. 수와 계산의 득점율은 모든 실어증 환자에서 언어과정의 득점율보다 현저하게 높았다. 본 시안(I)의 적용으로 유형분류가 가능하였던 예는 40례 중 34례로 그 분 는 실어 5례, broca실어 7례, ernicke실어 5례, 전실어 7례이었다.

이상의 결과로 본 한국어판 실어증 감별진단검사법(시안 I)이 실어증의 진단 및 유 분류에 있어서 임상적응 가치가 있음을 인할 수 있었다.